

CEO 동경

제5회 철도문학상 시상식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한국철도문화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10월 2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5회 철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당선자 20여 명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인도네시아 철도국 방한단 일행 면담



김광재 이사장은 10월 23일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항교 부디 위라완(Hanggoro Budi Wirayaman) 철도국장 등 방한단 일행을 면담하며 한국 철도의 우수성 등을 홍보했다.

지속가능성 지수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동시 수상

- 창조적 변화와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성 인정받아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 경영성과처에 따르면 공단은 10월 16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201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1위'와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KRCA)'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동시 수상했다.

KSI(Korea Sustainability Index)는 사회적 책임, KRCA(Korean Readers' Choice Awards)는 UN글로벌컴팩트의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에서 발행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은 독자들이 직접 뽑은 우수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단은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 ② 하도급 관리강화·중소기업 맞춤형 등 간접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③ 지역맞춤형 사회공헌·재능나눔(Pro-bono)으로 포브스가 인정한 사회공헌의 우수성, ④ Eco-Green 철도기업으로서의 친환경적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
공단은 철도시설규모 최최화, 시공방법 개선, 설계, 직접설계와 감독으로 최근 2년간 1조560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송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사업비 집행으로 경춘선 전라선 고속화사업 등을 포함해 14개 철도사업에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등 '저비용 고품질 철도건설'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양광발전, 전동시장 등 고계 맞춤형 수익 모델과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0개국 23개 사업 해외진출로 1849억원의 벌어들여 1344억원의 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② 하도급 관리강화·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 간접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온라인 구매 입찰상담 창구를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불법하도급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불공정 행위 척결에 기여했다.

③ 지역맞춤형 사회공헌·재능나눔 등 포브스가 인정한 사회공헌의 우수성
철도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차별화된 재능(Pro-bono)나눔 활동으로 포브스로부터 '13년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으며, 임직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교육 등 연간 9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했다.

④ Eco-Green 철도기업으로서의 친환경적 성과와 우수성
철도시설에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유류부지를 레일바이크, 자전거 도로 등 환경친화적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건설현장 환경영향 저감시설 1885개소를 설치하여 환경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NGO와 함께 '환경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환경길등 예방에 주력했다.

김 이사장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주어진 사업의 책임을 완수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동자 중심의 철도만 건설로 국가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상 수상 기념 촬영

미국 캘리포니아고속철도사업 계약 체결!

- 2~4단계사업 및 고속차량 구매 등 후속 협력도 강화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 해외철도사업처는 10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고속철도 우선사업구간(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210km)의 토목사업 시행자인 Tutor Perini JV컨소시엄과 고속철도 기술 지원용 계약인 프레스노에 있는 JV사무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공단과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동구간의 설계·시공 계약액 1조2000억원)을 수주한 Tutor Perini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의 1단계 구간을 우리 철도기술이 진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김광재 이사장과 JV의 대표사인 Tutor Perini 회장, 컨소시엄 참여 3개사,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행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17년까지 4년간 고속철도 설계·시공 및 중합 시운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김 이사장은 올해 말 응찰하는 약 3조원 규모의 2~4단계구간과 내년 이후의 궤도와 건설설계사업에도 JV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했으며, 특히 터널이 많은 3단계 구간은 우리의 터널 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주가 가능하도록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적자자 결정

- 국내 최초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 총 공사비 2221억 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이 10월 17일 국내 최초로 철도차량, 철도용품·시스템, 신기술·신공법 검증 등 총 9개 분야 147개 시험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을 위한 설계·시공입찰입찰(총 공사비 2221억원)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에스건설(주)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자자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입찰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입찰자에 대한 가중치(지역업체 참여 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15% 가산, 중소기업 참여 시 분야별 평점에 최대 2점 가산)를 적용했고, 입찰담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징의 제도를 도입했다.

또 업체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 18명의 심의위원 중 11명은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중앙 설계심사분과위원과 외부심의위원을 참여시켰고, 입찰참여업체에서 심의위원 추첨에 직접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별 심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본 공사는 실시설계적자자가 '14년 4월에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에 대해 설계심의를 거쳐 '14. 5월에 낙찰업체를 최종결정하고 '14. 6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16.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 열차가 운행되는 철도선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신제품, 신기술 등의 현장 시험이 시험선에서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 및 해외 수출기반 마련 등 국가 전략적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한국철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사업 순조로운 추진

-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KTX광명역의 복합환승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말(원정코스르크)에 이어, 오는 11월에 광명 종합터미널의 영입이 시작된다.

KTX광명역의 복합환승시설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광명역 복합터미널(주)을 설립한 이후, 경기 침체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공단과 광명역복합터미널(주)의 강력한 공동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건설부채 상환하기 위해 복합역사 개발, 페디스탑 개발, 7년 만에 합인정 개장에 이어 버스터미널 영입을 개시하게 했다.

작년 12월부터 영입을 시작한 합인정 점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만 4252㎡ 규모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으며, 약 4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발전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11월에 영입을 시작한 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527㎡ 규모로 강원권(속초, 강릉), 경기권(오송, 수원, 동탄, 발안), 충청 전북권(청주, 단진, 사산, 대안, 전주)에 시외버스를 일일 20회 운행

하는 한편, 인천공항·김포공항을 연계하는 공항 버스를 일일 63회 운행할 계획이며, KTX와도 연계하여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는 광명역 복합환승시설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2012년 말부터 30년간 정음로 등 약 820억 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은 채무상환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건설부채 상환하기 위해 복합역사 개발, 페디스탑 개발, 대양광 발전사업 등 철도시설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X포항직결선 최대 난공사 마산터널 관통

- 국내의 고속철도 최근접 공사(7.7m) 성공적인 첫 사례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에서 포항으로 연결하는 직결선 마산터널을 15일 성공적으로 관통했다.

마산터널(L=1350m)은 KTX 운행 중인 신경주역 인근의 방내터널로부터 7.7m 아래로 근접하여 교차 통과하는 난이도 높은 공사로, 고차시공 사례가 많은 일본에서도 고속 운행선 하부용 이렇게 근접하여 관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약 12개월 소요된 이번 공사는 국내의 권위있는 토질 및 터널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자문과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고속철도 선로 직하부는 계기로 바위를 쪼개는 방식으로, 입점구간은 저진동의 제어발파공법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운행 중인 방내터널과 굴착 중인 마산터널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및 크레일과의 계속결과 공을 통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의 진동치를 문화재 보호수준인 0.4cm/s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여 고속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열차 운행선 최근접 통과를 고속철도 근접시공의 모범적인 사례로써, 그동안 시공사들이 겪어 어려움을 겪었던 고속선 근접공사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KTX포항직결선을 포함한 신경주~포항간 복선전철은 예정대로 2014년 12월이면 정상적으로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